

윌리엄 윌슨

William Wilson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839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Edgar Allan Poe, "William Wilson" (1839)

저자

에드거 앨런 포 (Edgar Allan Poe, 1809-1849)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148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5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무엇이랴 말하겠는가? 내 앞길을 가로막는 저 참혹한 망령, 양심에 대해서는 무엇이랴 말하겠는가? — 챔벌레인의 『파로니다』 중에서.

당분간은 나 자신을 윌리엄 윌슨이라 부르겠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깨끗한 백지를 나의 본명으로 더럽힐 필요는 없다. 내 이름은 이미 우리 가문의 경멸과 공포,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진 분노 섞인 바람이, 이 이름에 깃든 유례없는 불명예를 떠들썩하게 알리지 않았던가? 오, 버림받은 자들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게 버림받은 자여! 그대는 세상에서 영원히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세상의 명예와 꽃들, 그리고 황금빛 꿈으로부터도 말이다. 그대의 희망과 하늘 사이에는 짙고 암울하며 끝을 알 수 없는 먹구름이 영원히 드리워져 있지 않은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차마 이곳에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과 용서받지 못할 죄악으로 점철된 내 말년의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 이 시기, 즉 내 생의 마지막 몇 년은 갑작스럽게 타락의 정점에 도달했다. 나는 오직 그 타락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만을 밝히고자 한다. 보통 사람은 서서히 타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달랐다. 마치 겉옷을 벗어 던지듯, 찰나의 순간에 모든 미덕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나는 사소한 악행을 저지르던 단계에서 거인의 발걸음으로 단숨에 도약하여, 엘라가발루스의 만행조차 능가하는 끔찍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대체 어떤 계기가, 어떤 사건이 이 악행을 불러왔단 말인가. 내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까지 부디 인내하며 들어주길 바란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죽음이 몰고 오는 그림자가 내 영혼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며, 나는 동료 인간들의 공감—하마터면 동정이라고 말할 뻔했다—을 간절히 바란다. 사람들이 내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믿어주었으면 한다. 내가 이제부터 들려줄 세세한 이야기 속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가득 찬 황무지 가운데 운명이라는 이름의 작은 오아시스를 찾아내 주길 바란다.

사람들이 차마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를 인정해주길 바란다. 유혹이 그토록 거셌을지언정, 인간이 이토록 유혹받은 적은 없었으며, 적어도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적은 결코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기에 인간이 이토록 고통받은 적도 없었던 것일까? 나는 진정 꿈속을 살고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지금, 세상의 그 어떤 환상보다도 기괴하고 신비로운 공포의 희생양이 되어 죽어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정이 쉽게 격앙되는 기질을 타고난 가문의 후손이다. 이러한 성정은 우리 가문 사람들을 언제나 남다른 존재로 만들었다. 나 역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문의 특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음을 보여주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기질은 더욱 강해졌다. 여러 이유로 인해 그 성격은 친구들에게는 심각한 걱정거리가 되었고, 나 자신에게는 명백한 해가 되었다. 나는 고집스러워졌으며, 종잡을 수 없는 변덕에 빠져들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걱정의 희생양이 되었다.

나의 부모님은 의지가 약한 데다 나와 비슷한 체질적 허약함까지 안고 계셨기에, 나에게서 나타나는 이 나쁜 성향들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모님이 나름대로 애를 써보기도 했으나 그 노력은 미약하고 방향도 잘못되어 결국 실패로 끝났다. 당연하게도 그 실패는 나의 완전한 승리로 이어졌다. 그날 이후로 내 목소리는 집안의 법이 되었다. 걸음마를 갓 떼는 아이들이나 할 법한 나이에, 나는 이미 부모의 지도를 벗어나 오직 내 의지대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름만 없을 뿐, 나는 내 행동의 주인이나 다름없었다.

학창 시절에 대한 나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영국의 어느 안개 낀 마을에 있는, 크고 어수선한 엘리자베스 양식의 저택과 연결되어 있다. 그 마을에는 거대하고 뒤틀린 나무들이 무수히 솟아 있었고, 집들은 하나같이 지나치게 넓어 있었다. 참으로 그 유서 깊은 마을은 꿈결처럼 아스라하면서도 마음을 평온하게 달래주는 곳이었다.

지금 이 순간, 상상 속에서 나는 그 마을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로수길의 상쾌한 한기를 느낀다. 수천 그루의 관목이 내뿜는 향기를 들이마신다. 그리고 매 시간, 고딕 양식의 첨탑이 잠든 어스름한 공기를 가르며, 낮고 무겁게 울려 퍼지는 교회 종소리를 듣는다. 그 갑작스럽고도 침울한 울림은 이름 모를 환희가 되어 내 마음을 다시금 떨리게 한다.

학창 시절의 일들과 그 시절의 고민들을 세세하게 회상하는 일은, 아마도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일 것이다. 비록 나는 지금 형언할 수 없는 비극 속에 잠겨 있지만—아, 이 비극은 너무

나도 생생한 현실이다—그저 사소하고 덧없는 이야기들에 기대어 잠
시나마 위안을 얻으려 한다 해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

사실 내가 떠올리는 이 기억들은 하나같이 사소하고 때로는 우스꽝
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내 상상력 속에서 이 기억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바로 훗날 나의 삶을 완전히 뒤덮어버린 운명의 불길한 전조
를, 내가 처음으로 마주했던 그 시절과 그 장소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
이다.

이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려 한다.

앞서 말했듯, 그 저택은 오래되고 구조도 들쭉날쭉했다. 부지는 광
활했으며, 높고 견고한 벽돌 담장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다. 담장 위
에는 모르타르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겹겹이 깔려 있었다. 마치 감옥의
성벽 같은 이 담장이 우리 영지의 경계였다. 담장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일주일에 고작 세 번뿐이었다. 토요일 오후에 두 명의 감
독관을 동반하여 인근 들판을 짧게 산책할 때 한 번, 그리고 일요일에
마을의 유일한 교회로 아침과 저녁 예배를 드리러 격식을 갖춰 행진할
때 두 번이었다.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바로 그 교회의 목사였다.

교장 선생님이 엄숙하고 느릿한 발걸음으로 강단에 오를 때면, 나는
갤러리 구석진 자리에서 경외심과 당혹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
라보곤 했다. 인자하고 온화한 얼굴, 윤기가 흐르는 매끄러운 성직자
복,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가루를 뿌려 뽀뽀하고 거대해 보이는 가발까
지. 이 경건한 분이 정말로, 최근 들어 뚝은 표정을 지으며 코담배 가루
가 묻은 옷차림으로 회초리를 손에 든 채 학교의 가혹한 규율을 집행하

던 그 사람일 수 있을까? 오, 이 거대하고도 모순적인 모습이라니! 도저히 풀 수 없을 만큼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육중한 벽의 한 모퉁이에는 그보다 더 육중한 문이 위압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문은 철제 볼트로 단단히 고정되어 박혀 있었고, 그 위로 는 들쭉날쭉한 철제 가시들이 솟아 있었다. 그 문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경외심이 밀려왔다. 앞서 언급한 세 차례의 정기적인 출입을 제외하면 문은 좀처럼 열리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문이 열릴 때마다 거대한 경첩에서 들려오는 삐걱거리는 소리는 우리에게 수많은 의문을 던져주었다. 그 소리는 엄숙한 관찰의 대상이자, 더욱 깊은 명상에 잠기게 하는 신비로운 세계와도 같았다.

넓게 둘러쳐진 울타리 안은 모양이 불규칙했고, 곳곳에 널찍한 구석진 공간들이 많았다. 그중 가장 큰 곳 서너 군데가 운동장 역할을 했다. 운동장은 평탄했으며, 곱고 단단한 자갈이 깔려 있었다. 그 안에는 나무 한 그루, 벤치 하나, 그와 비슷한 물건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당연히 운동장은 저택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저택 앞에는 회양목과 다른 관목들이 심어진 작은 화단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성한 구역을 지날 일이 거의 없었다. 학교에 처음 입학하거나 졸업할 때처럼 아주 드문 경우뿐이었다.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구가 찾아와서, 크리스마스나 한여름 휴가를 맞아 기쁜 마음으로 집을 향해 나설 때 정도였다.

하지만 그 저택은 정말이지 놀라웠다. 얼마나 기묘하고 오래된 건물이었던가! 내게 그곳은 마치 마법이 걸린 궁전처럼 느껴졌다. 저택은

끝없이 구불구불 이어졌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나뉘어 있었다. 어느 순간 자신이 2층에 있는지 1층에 있는지 확신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어느 방에서 다른 방으로 가려 해도, 반드시 위나 아래로 이어지는 세댓 개의 계단을 거쳐야만 했다. 게다가 옆으로 뻗어나간 복도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았고, 그 구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다. 복도들이 서로 얹히고설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통로를 보고 있노라면, 저택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려던 우리의 정교한 계산조차 무한한 우주를 고찰할 때의 막막함과 다를 바 없었다. 이곳에서 5년 동안 머무는 동안, 나는 나와 다른 18~20명 정도의 학도들에게 배정된 그 작은 침실이 대체 이 거대한 저택의 어느 구석진 곳에 박혀 있는지 끝내 정확히 알아내지 못했다.

교실은 그 집에서 가장 넓은 곳이었다.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말이다. 교실은 매우 길고 좁았으며, 천장이 낮아 음산한 느낌을 주었다. 고딕 양식의 뾰족한 창문이 달려 있었고 천장은 오크 나무로 되어 있었다. 구석진 곳, 공포마저 불러일으킬 듯한 외진 자리에는 8~10피트 정도 되는 사각형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곳은 교장 선생님인 브랜스비 박사가 수업 시간 동안 머무는 성소와도 같은 집무실이었다. 그곳은 육중한 문이 달린 견고한 구조물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자리에 안계실 때라면, 우리는 그 문을 여느니 차라리 '고문(peine forte et dure)'을 당해 죽는 편을 기꺼이 택했을 것이다. 다른 구석에도 비슷한 형태의 방이 두 개 더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의 방만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하나는 '고전' 담당 교사의 설교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어 및 수학' 담당 교사의 공간이

었다. 교실 곳곳에는 수많은 벤치와 책상이 끝도 없이 불규칙하게 얹혀 있었다. 검고 오래되어 닳아버린 책상 위에는 손때 묻은 책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책상 표면은 누군가 칼로 새겨 넣은 이니셜과 이름, 기괴한 형상들로 가득했다. 그 수많은 칼자국 때문에, 아주 오래전 책상이 가졌을 원래의 형태는 흔적조차 찾기 힘들 정도였다. 교실 한쪽 끝에는 물이 담긴 커다란 양동이와 놓여 있었고, 반대쪽 끝에는 엄청난 게 커다란 시계가 걸려 있었다.

유서 깊은 이 학교의 육중한 성벽 안에서, 나는 인생의 세 번째 5년을 보냈다. 지루함이나 혐오감에 빠진 채 보낸 시간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의 넘치는 두뇌는 외부 세계의 사건들이 없어도 스스로를 채우고 즐겁게 만드는 법이다. 겉보기에는 학교생활이 지루한 단조로움의 연속 같았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성인이 되어 누린 사치나 장성한 뒤 겪은 범죄보다 훨씬 강렬한 자극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의 초기 정신적 발달 과정에는 아주 이례적이고, 심지어 기괴하기까지 한 일들이 많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들에게 아주 어린 시절의 사건은 성인이 된 후에도 뚜렷한 인상을 남기는 경우가 드물다. 그저 희미한 그림자처럼, 약하고 불규칙한 기억으로만 남을 뿐이다. 희미한 즐거움과 환상 같은 고통들이 모호하게 뒤섞여 떠오를 뿐이다.

나의 경우는 달랐다. 어린 시절의 나는 지금 내 기억 속에 각인된 것들을, 마치 성인이 느끼는 것과 같은 강렬한 에너지로 느꼈던 것이 분

명하다. 그 기억들은 카르타고 동전에 새겨진 각인처럼 선명하고, 깊고, 영구적이다.

하지만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억할 만한 일이라곤 거의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라는 부름을 받는 일들. 암기하고 암송하던 공부들, 주기적으로 주어지던 반차와 산책, 그리고 싸움과 놀이, 온갖 음모가 뒤섞여 있던 운동장까지.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잊힌 정신적 마법에 걸린 듯, 그 모든 기억은 광활한 감각의 황무지가 되었고, 풍성한 사건이 넘치는 세상이자, 걱정적이고도 영혼을 뒤흔드는 흥분이 가득한 감정의 우주로 변모했다. “아, 철의 시대여, 그 시절이여, 참으로 좋았지!”

사실 나의 성격은 워낙 열정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데다 기세까지 당당했다. 덕분에 나는 곧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나는 나보다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모든 이들 위에서 우두머리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었다.

그 예외는 한 학생이었다. 그는 나와 친척 관계는 아니었으나, 나와 똑같은 이름과 성을 지니고 있었다. 사실 이 점은 그리 특별할 것도 없었다. 나의 가문은 귀족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은 마치 아주 먼 옛날부터 대중의 전유물이었던 것처럼 흔해 빠진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에서 나 자신을 '윌리엄 윌슨'이라는 가명으로 지칭하기로 했다. 실제 이름과 그리 다르지 않은 가명이다.

학교에서 소위 '우리 무리'라고 불리던 아이들 중, 오직 나와 이름이 같은 그 아이만이 나에게 맞서려 했다. 그는 학업에서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경기나 싸움에서도 나를 경쟁 상대로 여겼다. 그는 나의 주장을 무조건 믿어주지도 않았고, 내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내가 독단적으로 휘두르는 권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섭하기까지 했다. 만약 이 세상에 절대적이고 무소불위의 독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 기운 넘치는 아이가 그보다 기운이 약한 친구들을 지배하는 독재일 것이다.

윌리엄 월슨의 반항은 나에게 커다란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대중 앞에서는 그와 그의 허세를 대수롭지 않게 대하며 의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가 나를 상대로 너무나 쉽게 대등한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보며, 나는 그가 진정으로 나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와 대등함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끊임없이 사투를 벌여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월함, 아니 이 대등함조차 사실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의 동료들은 알 수 없는 눈먼 상태인 듯, 그 사실을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실제로 그가 나를 견제하고 저항하며, 특히 나의 계획에 무례하고 끈질기게 간섭하는 행위는 공적인 자리보다 사적인 자리에서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에게는 나를 채찍질하던 야망도, 나를 탁월하게 만들었던 격정적인 정신적 에너지도 결여된 것처럼 보였다. 그가 나를 경쟁 상대로 삼은 것은 그저 나를 방해하고, 놀라게 하고, 굴욕을 주려는 변덕스러운

욕구 때문이라고 생각될 정도였다. 물론 가끔은 경이로움과 비굴함,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기분으로 그를 관찰하게 되는 순간도 있었다. 그가 나를 공격하거나 모욕하고 내 말에 반박하면서도,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친근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불쾌하고도 묘한 태도는 분명 환영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기이한 행동이, 마치 자신이 나를 후원하고 보호하는 위치에 있다는 듯이 천박한 태도를 취하는 극도의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월슨의 그런 행동 방식과 이름이 같다는 점,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같은 날 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맞물리면서, 상급반 학생들이 여기서는 우리가 형제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보통 상급생들은 하급생의 사정에 그리 엄격하게 관심을 두지 않는 법이다. 앞서 말했듯이, 혹은 말했어야 했듯이, 월슨은 내 가족과 눈곱만큼도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정말 형제였다면, 분명 쌍둥이였을 것이다. 브랜스비 박사의 학교를 떠난 뒤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나와 이름이 같은 그 친구는 1813년 1월 19일에 태어났다고 한다. 이는 꽤나 놀라운 우연이다. 그날이 바로 내가 태어난 날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월슨의 끊임없는 시기와 도저히 참기 힘든 반항적인 태도 때문에 내가 늘 불안에 떨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를 완전히 미워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거의 매일 다투곤 했다. 겉으로는 그가 나에게 승리를 양보하며 체면을 세워주었지만, 정작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승리의 자격이 있는 쪽은 자신이라는 기분

이 들게끔 교묘히 굴었다. 그럼에도 내 안의 자존심과 그가 지닌 특유의 품위 덕분에 우리는 늘 서로 말을 섞는 사이를 유지했다. 게다가 우리의 성품에는 서로 잘 맞는 구석이 많았다. 아마도 우리의 처지 때문에 우정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으나, 그 공통점들은 내 마음속에 묘한 동질감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사실 그를 향한 내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정의하거나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내 마음은 여러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상태였다. 아직 증오라고 하기엔 부족한 짜증 섞인 적대감, 약간의 호감, 그보다 큰 존경, 커다란 두려움, 그리고 불안한 호기심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덧붙이자면, 월슨과 나는 그 누구보다도 뗄 수 없는 사이였다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관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관계 때문에 내가 그에게 가했던 수많은 공격—그것이 대놓고 하는 것이든 은밀한 것이든—은 진지하고 단호한 적대감으로 흐르지 못했다. 대신 나는 농담이나 장난을 빙자하여 그를 공격하곤 했다. 겉으로는 그저 재미 삼아 하는 일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였다.

하지만 아무리 기발한 계획을 세워도 나의 시도가 매번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나와 이름이 같은 그 친구는 성격상 겸손하고 조용한 엄격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던지는 농담의 날카로움을 즐길 줄 알았으나, 정작 본인은 결코 남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마치 아킬레스건조차 없는 완벽한 인물이었다.

내가 찾아낼 수 있었던 약점은 단 하나뿐이었다. 아마도 타고난 체질 때문인 듯한 그의 신체적 특이점이었는데, 나만큼 궁지에 몰린 적이 없는 상대였다면 결코 건드리지 않았을 부분이었다. 나의 라이벌은 목구멍이나 성대 쪽이 약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아주 낮은 속삭임 정도로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 결함을 이용해 내가 할 수 있는 비겁한 이득을 기어코 챙기곤 했다.

윌리엄 윌슨은 똑같이 되갚아 주는 일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그의 실질적인 재치가 발휘된 한 가지 방식은 나를 말할 수 없이 괴롭혔다. 그가 어떻게 그토록 사소한 일이 나를 짜증 나게 할 거라는 사실을 처음 알아냈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알아낸 뒤로는 습관적으로 나를 괴롭히곤 했다.

나는 평소 내 성이 품위 없게 느껴졌고, 이름 또한 평범하다 못해 천박하게 느껴져 늘 거부감을 품고 있었다. 그 이름은 내 귀에 독처럼 들렸다. 그러던 중 내가 아카데미에 입학하던 날, 또 다른 윌리엄 윌슨이 함께 들어왔다. 나는 그가 나와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에 화가 났고, 그 이름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이중으로 혐오감을 느꼈다. 게다가 그 이름은 낯선 이의 것이었다. 그는 내 곁에 늘 머물며 이름이 겹치는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 분명했다. 또한 학교 생활의 일상적인 과정 속에서, 이 끔찍한 우연 때문에 그의 일과 내 일이 빈번하게 뒤섞일 수밖에 없었다.

그와 나 사이에 도덕적이든 신체적이든 닮은 구석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내 안의 짜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당시에는 우리가

동갑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으나, 키가 같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심지어 체격의 전반적인 윤곽이나 이목구비의 생김새조차 기이할 정도로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급반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가 친척 관계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한마디로, 우리 사이에 정신적, 신체적, 혹은 처지 면에서 유사점이 있다는 암시가 들려오면 나는 무엇보다도 심한 정신적 동요를 느꼈다. 물론 나는 그런 동요를 철저히 숨겼지만 말이다.

하지만 사실, 친척 관계라는 문제나 윌리엄 윌슨 본인의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 사이의 유사점이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언급되거나 심지어 눈에 띄기라도 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었다. 윌리엄 윌슨이 그 모든 유사점을 나만큼이나 또렷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다만 그가 이토록 사소한 점들을 찾아내어 나를 괴롭히는 도구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했듯 그의 비범한 통찰력 덕분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의 임무는 나를 완벽하게 흉내 내는 것이었다. 그는 말과 행동 모두에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냈다. 나의 옷차림을 따라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걸음걸이나 전반적인 태도 역시 어렵지 않게 가져다 썼다. 타고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목소리마저 놓치지 않았다. 물론 내가 크게 말할 때의 톤까지 흉내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음조만큼은 나와 똑같았다. 게다가 그가 내는 특유의 속삭임은 마치 내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듯했다.

이 정교한 초상화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감히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사실 이것을 단순한 희화화라고 부르기에는 그 묘사가 너무도 정밀했으니까. 나에게 남은 위안은 단 하나뿐이었다. 겉보기에 이 모사품을 알아챈 사람은 나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와 이름이 같은 그 자가 짓는, 다 안다는 듯 기묘하게 비아냥거리는 미소만을 견디면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의도한 효과를 내 가슴 속에 심어 넣었다는 사실에 만족한 듯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가한 일격에 혼자 속으로 낄낄거리는 것 같았다. 그의 재치 있는 시도가 대중의 박수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음에도, 그는 특유의 태도로 타인의 찬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행동했다.

학교 사람들이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모사가 성공했음을 인지하지도 못하며, 그 비웃음에 동참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수개월 동안 내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어쩌면 그가 원작을 아주 미세하게 변형했기에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혹은, 더 가능성이 높게는, 그 모사꾼의 거장다운 솜씨 덕분이었을 것이다. 그는 원작의 글자 그대로를 베끼는 것을 경멸했으니, 그림에서 글자 그대로를 보는 이들은 대개 어리석은 법이다. 그는 오직 원작의 정신만을 온전히 담아내어, 나 개인만이 그 모습을 마주하며 괴로워하도록 만들었다.

그가 나를 대할 때 풍기던 그 역겨운 후원자 행세와, 내 의사를 사사건건 참견하며 간섭하던 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그의 간섭은 대개 무례한 조언의 형태를 띠었다. 대놓고 하는 조언이 아니라, 은근히 암시하거나 넌지시 비치는 식이었다. 나는 그 조언을

혐오스럽게 받아들였고, 나이가 들수록 그 거부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하지만 먼 훗날인 지금에 와서, 그에게 최소한의 공정함을 베풀어 인정할 점을 말해두려 한다. 내 라이벌이 건네던 제안들이, 그 시절의 미숙함이나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나 어리석은 일들을 부추겼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말이다. 비록 그의 전반적인 재능이나 세상 물정에 밝은 지혜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도덕적 관념만큼은 나보다 훨씬 예리했다. 만약 내가 당시에는 너무나 친근하게 미워하고 격렬하게 경멸했던 그 의미심장한 속삭임들을, 그 조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나는 오늘날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만큼 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나는 그의 불쾌한 간섭을 견디다 못해 극도로 초조해졌고, 참을 수 없는 오만함이라 여겨지는 그의 태도에 날이 갈수록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앞서 말했듯, 우리가 학우로 지낸 초기 몇 년 동안은 그에 대한 내 감정이 우정으로 무르익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학교에 머물던 마지막 몇 달 동안은 상황이 달랐다. 그의 평소처럼 참견하던 버릇이 어느 정도 줄어들긴 했으나, 그만큼 내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명백한 증오가 비례하여 커져만 갔다. 어느 날 그는 내 마음을 눈치챈 듯했다. 그 이후로 그는 나를 피하거나, 혹은 피하는 척이라도 하며 나를 멀리했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와 격렬한 다툼이 있었던 시기도 대략 그 무렵이었다. 평소답지 않게 그는 무방비 상태로 휘말려 있었고, 본래 성격

과는 거리가 먼 태도로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했다. 바로 그때 나는 그의 말투와 태도, 그리고 전반적인 모습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혹은 발견했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그 무언가는 처음에는 나를 깜짝 놀라게 했고, 이내 깊은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기억이라는 개념조차 태어나기 전, 아주 어린 영아기 시절의 희미한 환영을 떠올리게 했다. 기억조차 존재하지 않던 시절의 거칠고 혼란스러우며 복적거리는 기억들이었다.

당시 나를 짓눌렀던 기분을 설명하자면, 내 앞에 서 있는 이 존재를 아주 오래전, 어쩌면 무한히 먼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믿음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착각은 나타난 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졌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기묘한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과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가 바로 그날이었음을 밝히기 위해서다.

수많은 방으로 나뉜 그 거대하고 오래된 저택에는 학생 대부분이 잠을 자는 커다란 방들이 여러 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건물의 구조가 워낙 기형적으로 설계된 탓인지, 건물 곳곳에는 자투리 공간처럼 남은 작은 구석이나 움푹 들어간 공간들이 많았다. 브랜스비 박사는 이 공간들조차 알뜰하게 활용하여 기숙사로 꾸며 놓았다. 비록 아주 좁은 다락방 수준이라 한 번에 딱 한 명만 머물 수 있는 곳들이었지만 말이다. 윌리엄 윌슨은 바로 이 작은 방 중 하나를 쓰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다섯 번째 학년이 끝나갈 무렵의 어느 밤이었다. 방금 전의 다툼이 있던 직후였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등불을 손에 들었다. 그리고 내 침실에서 라이벌의 방까지, 미로처럼 얽힌 좁은 복도들을 지나 살금살금 움직였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를 골탕 먹일 악의적인 장난을 계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이제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참이었다. 그가 내가 품은 악의가 얼마나 깊은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노라 다짐했다.

그의 방 앞에 도착한 나는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등불은 갓을 썩은 채 방 밖에 놓아두었다. 한 걸음 내디딘 나는 그가 평온하게 숨을 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나는 다시 돌아가 등불을 챙겨 들고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침대 주위에는 커튼이 굳게 쳐져 있었다. 나는 계획대로 커튼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젖혔다. 그러자 밝은 빛이 잠든 이의 위로 선명하게 쏟아졌고, 동시에 내 눈은 그의 얼굴을 향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온몸에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엄습했다. 가슴은 거칠게 요동쳤고 무릎은 후들거렸다. 형체도 없는, 그러나 견딜 수 없는 공포가 내 영혼을 집어삼켰다. 숨을 헐떡이며 나는 등불을 그의 얼굴 가까이 더 낮게 가져갔다.

이 얼굴이, 이 이목구비가 정말 윌리엄 윌슨이란 말인가? 분명 그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마치 말라리아라도 걸린 듯 몸을 떨었다. 대체 이 얼굴의 무엇이 나를 이토록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나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치며 어지럽게 맴돌았다.

그는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깨어 있는 동안의 생기 넘치는 모습은 분명 이와 달랐다. 이름도 같고, 생김새도 같으며, 이 학교에 입학한 날짜까지 같았다. 게다가 그는 나의 걸음걸이와 목소리, 습관과 태도까지 끈질기게,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흉내 내지 않았던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저 나를 조롱하며 흉내 내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이란 말인가? 인간의 가능성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경외감 섞인 공포와 함께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끼며 등불을 켜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왔다. 나는 그 즉시 그 오래된 학교를 떠났고,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집에서 그저 무위도식하며 몇 달을 보낸 뒤, 나는 이튼의 학생이 되었다. 그 짧은 공백기 동안 브랜스비 박사의 저택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다. 적어도 그 사건을 떠올릴 때 느껴지는 감정의 성질만큼은 눈에 띄게 변해 있었다. 그 연극 같은 사건이 지녔던 진실, 아니 비극적인 면모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내 감각이 보여준 증거를 의심할 여유가 생겼다. 그 주제를 다시 떠올리는 일은 드물었으며, 그럴 때마다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맹목적인지 경탄하거나, 내가 물려받은 이 생생하고 강렬한 상상력에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이튼에서의 생활 또한 이러한 회의적인 태도를 꺾어놓지는 못했다. 나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무모한 쾌락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소용돌이는 과거의 기억 중 거품 같은 것들을 제

외하고는 모두 씻어내 버렸다. 과거의 견고하고 진지했던 인상들은 단숨에 집어삼켜졌고, 기억 속에는 오직 지나간 삶의 가벼운 유흥들만이 남았다.

하지만 여기서 나의 비참한 방탕함을 구구절절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 법을 비웃고 감시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던 그 방탕한 생활 말이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허비한 3년의 세월은 나에게 뿌리 깊은 악습만을 남겼다. 그 와중에 몸집만 유달리 커졌을 뿐이었다. 영혼 없는 쾌락에 빠져 지낸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가장 타락한 학생 몇 명을 내 방으로 불러 비밀스러운 술자리를 마련했다. 우리는 깊은 밤에 모였다. 우리의 방탕한 유흥은 아침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술은 끊임없이 흘러넘쳤고, 그보다 더 위험하고 유혹적인 즐거움들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동쪽 하늘에 희뿌연 새벽빛이 어렴풋이 비칠 무렵에도 우리의 광란적인 흥청망청함은 절정에 달해 있었다. 카드 게임과 술기운에 미친 듯이 달아오른 나는 평소보다 더 심한 욕설을 섞어가며 건배를 재촉하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거칠게, 그러나 완전히 열리지는 않은 채 벌컥 열리며 내 주의를 끌었다. 문밖에서는 하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이 복도에서 매우 급한 듯 나를 만나겠다고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술기운에 정신이 한껏 들떠 있던 터라, 예상치 못한 방해는 놀랍기 보다는 오히려 반가웠다. 나는 비틀거리며 곧장 앞으로 나아갔고, 몇 걸음 옮기자 건물의 현관에 다다랐다. 낮고 좁은 이 방에는 등불 하나 걸려 있지 않았다. 반원형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만이 유일한 광원일 뿐이었다.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나와 키가 비슷한 한 청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최신식 양식의 흰색 커지미어(고급 모직) 모닝 프록을 입고 있었다. 희미한 빛 덕분에 옷차림 정도는 알아볼 수 있었으나, 얼굴의 생김새까지는 분간할 수 없었다. 내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서둘러 내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러더니 짜증 섞인 몸짓으로 내 팔을 움켜쥐고는, 내 귓가에 "윌리엄 윌슨!"이라고 낮게 속삭였다.

나는 순식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낮선 이의 태도와, 내 눈과 조명 사이에서 치켜든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던 모습은 나를 형언할 수 없는 경악에 빠뜨렸다. 하지만 나를 이토록 격렬하게 뒤흔든 것은 비단 그 모습 때문만은 아니었다. 낮게 쉴쉴거리며 내뱉은 그 기이한 음성에는 엄중한 경고가 묵직하게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짧고 단순하며 익숙한 그 몇 마디 속삭임이 지닌 성격과 어조, 그리고 그 음조였다. 그 말들은 지나간 날들의 수만 가지 기억을 한꺼번에 몰고 오며, 마치 전류가 흐르는 배터리처럼 내 영혼을 강타했다. 내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 사건은 혼란스러운 내 상상력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그 잔상은 이내 희미해졌다. 실제로 몇 주 동안 나는 이 일을 진지하게 조사하거나, 혹은 병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시간을 보냈다. 내 일에 이토록 끈질기게 간섭하며 은근한 충고로 나를 괴롭히는 그 기묘한 인물이 바로 학창 시절의 그 윌슨이라는 사실만큼은, 나도 내 인식 속에서 굳이

부정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윌리엄 윌슨이라는 자는 대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는 어디서 왔으며,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이 질문들에 대해 그 어떤 확신도 얻지 못했다. 그에 대해 알아낸 것이라고는, 내가 가출하던 날 오후에 그의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겨 브랜스비 박사의 아카데미를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 문제를 생각하기를 그만두었다. 곧 옥스퍼드로 떠날 계획에 온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곧 옥스퍼드로 향했다. 부모님의 계산 없는 허영심 덕분에 나는 옷가지와 연간 생활비를 넉넉히 지원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나는 이미 내 마음을 사로잡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바로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백작 가문의 오만한 후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들 못지않게 돈을 펄펄 쓰는 즐거움 말이다.

악행을 저지를 기회가 생기자, 내 타고난 기질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나는 광기 어린 유흥에 빠져들어 최소한의 품위조차 저버렸다. 하지만 내 방탕함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저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해두겠다. 나는 수많은 돈을 낭비하는 자들 중에서도 헤롯 왕보다 더 지독한 낭비가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나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타락했던 대학에 만연하던 온갖 악행의 목록에, 이름조차 붙이기 힘든 새로운 쾌락들을 더하며 그 목록을 더욱 길게 늘어놓았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서조차 신사로서의 품위를 완전히 저버렸으리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직업 도박꾼의 가장 비열한 기술을 익히려 들고, 그 천박한 기술에 능숙해진 뒤에는 동료 학생 중 정신력

이 약한 이들을 등쳐먹으며 이미 막대한 내 수입을 불리는 수단으로 삼다니 말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모든 남성적이고 명예로운 감정에 반하는 이 엄청난 죄악은, 역설적이게도 그 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였다. 아니, 유일한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내 주변의 방탕한 동료들 중 그 누가, 명랑하고 솔직하며 관대한 윌리엄 윌슨을 그런 파렴치한 행위자로 의심하겠는가. 옥스퍼드에서 가장 고결하고 너그러운 평민이라 칭송받던 그를 말이다. 그들은 차라리 자신의 눈과 귀가 틀렸다고 믿고 말지, 결코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나의 실수란 그저 젊은 날의 치기 어린 방황이나 억제되지 않은 상상력에 불과했고, 나의 잘못은 남들이 흉내 낼 수 없는 독특한 기질이었으며, 나의 가장 어두운 악덕조차 그저 경솔하고 화끈한 낭비벽 정도로만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두 해 동안이나 이런 식으로 성공적인 수완을 발휘하던 중, 글렌디닝이라는 젊은 신흥 귀족이 대학에 나타났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헤로데스 아티쿠스처럼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하는데, 그 재산 또한 아주 손쉽게 모은 것이었다. 나는 곧 그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당연하게도 그를 내 기술을 시험해 볼 적절한 대상으로 점찍었다.

나는 자주 그를 게임에 끌어들었다. 그리고 도박꾼 특유의 수법을 발휘해 그가 꽤 큰 돈을 따게끔 유도했다. 그를 내 함정에 더욱 확실히 빠뜨리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계획이 무르익었을 때, 나는 그를 만났

다. 이 만남이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단계가 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한 상태였다. 만남의 장소는 우리 둘 모두와 친분이 있는 동급생 프레스턴 씨의 방이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프레스턴 씨는 내 의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상황을 더욱 그럴싸하게 꾸미기 위해, 나는 여덟 명에서 열 명 정도의 무리를 모아두었다. 그리고 카드 게임이 시작되는 과정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이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다. 심지어 내가 노리는 희생양인 글렌디닝 본인이 먼저 게임을 제안하도록 유도하기까지 했다.

추잡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지는 않겠다. 나는 그간의 비열한 수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동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수법들은 워낙 흔한 것이라, 어째서 아직도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 미련하게 당하는 자들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밤이 깊도록 게임은 계속되었다. 나는 마침내 교묘한 수법을 써서 글렌디닝을 나의 유일한 상대자로 만들었다. 마침 내가 가장 즐기는 에카르테(écarté) 게임이기도 했다. 우리 게임이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지 흥미를 느낀 나머지, 다른 일행은 각자의 카드를 내려놓은 채 구경꾼이 되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저녁 초반, 나의 술수들에 넘어가 술을 연거푸 들이켜던 그 졸부는 이제 몹시 불안한 태도로 카드를 섞거나 나누고 있었다. 그의 거친 행동은 술기운 때문인 듯도 했으나, 내가 보기에는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나에게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 그때 그가 포트 와인을 길게 한 모금 들이켜더니, 내가

냉정하게 예상했던 행동을 정확히 실행에 옮겼다. 바로 이미 엄청나게 커진 판돈을 두 배로 올리자는 제안이었다.

나는 짐짓 내키지 않는 척하며 거절했다. 내가 반복해서 거절하자 그는 화를 내며 쏘아붙였고, 그 기색에 맞춰 나도 마지못해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뒤에야 마침내 승낙했다. 결과는 당연하게도 그가 내 뺏에 완전히 걸려들었음을 증명했다.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빗은 네 배로 불어났다.

한동안 그의 얼굴에서는 와인 덕분에 돌던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안색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놀랐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다. 내가 집요하게 캐물었을 때 글렌디닝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지금까지 잃은 돈도 분명 막대한 액수였지만, 그 정도 금액이 그를 심각하게 괴롭히거나 이토록 격렬하게 동요하게 만들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방금 마신 술에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웠다. 나는 동료들에게 내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혹은 다른 어떤 의도 때문이 아니라, 게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곁에 있던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글렌디닝은 절망에 빠진 비명을 내질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를 완전히 파멸시켰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모든 이의 동정심을 살 만큼 처참한 상황에 놓였고, 그 비참함은 악마조차 그를 해치지 못하게 막아줄 만큼 처절한 상태였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지는 나조차도 설명하기 어렵다. 속아 넘어간 자의 비참한 몰골이 현장의 분위기를 무겁고 침울하게 짓눌렀기 때문이다. 한동안 깊은 침묵이 이어졌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나를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을 느꼈다. 도덕적 양심을 지키려는 이들이 나를 경멸과 비난의 눈초리로 뜨겁게 쏘아보고 있었다. 뺨이 화끈거리는 것만 같았다. 사실, 뒤이어 일어난 갑작스럽고 기이한 소동 덕분에 가슴을 짓누르던 참기 힘든 불안감이 아주 잠시나마 씻겨 내려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방 안의 넓고 무거운 접이식 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렸다. 누군가 들이닥치듯 문을 활짝 열어젖힌 기세가 어찌나 강렬했던지,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져버렸다. 꺼져가는 불빛 사이로 낮선 이가 들어오는 모습이 언뜻 보였다. 그는 나와 키가 비슷했고, 망토를 두껍게 걸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내 방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우리는 그저 낮선 이가 우리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만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이 무례한 침입에 모두가 커다란 충격을 받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침입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사 여러분.”

그가 낮고 또렷하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음성은 내 뺨속까지 전율케 했다.

“신사 여러분, 저는 제 행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뿐이니깐요. 여러분은 오늘 밤 에카르테(écarté) 게임에서 글렌디닝 경으로부터 거액을

따낸 그 자가 어떤 인물인지 전혀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이 꼭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시간 나실 때 그자의 왼쪽 소매 안쪽 안감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입은 자수 놓인 모닝 가운의 넉넉한 주머니 속에 들어 있을 작은 꾸러미들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주변은 편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깊은 정적에 잠겼다. 말을 끝낸 그는 나타났을 때만큼이나 갑작스럽게,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났다. 내가 느낀 감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 설명해야만 할까. 지옥의 형벌을 받는 죄인이 느끼는 그 모든 공포를 느꼈다고 말해야 할까. 분명한 건, 내가 그 상황을 되돌아볼 여유 따위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 즉시 수많은 손이 나를 거칠게 붙잡았고, 곧바로 불빛들이 다시 밝혀졌다. 뒤이어 수색이 시작되었다. 내 소매 안감에서는 에카르테(écarté) 게임에 꼭 필요한 코트 카드들이 발견되었다. 가운 주머니에서는 우리가 게임할 때 썼던 것과 똑같이 생긴 카드 뭉치들이 여러 개 나왔다. 다만 내 카드들은 전문 용어로 '아론데(arrondees)'라고 불리는 종류였다. 그림 카드의 양 끝이 약간 볼록하고, 낮은 숫자의 카드들은 옆면이 약간 볼록한 형태였다.

이런 식으로 카드를 구성해 놓으면, 관례에 따라 카드 뭉치의 길이를 기준으로 패를 떼는 봉(숙아 넘어가는 피해자)은 상대방에게 반드시 그림 카드를 떼어 주게 된다. 반면, 카드의 너비를 기준으로 패를 떼

는 도박사는 피해자에게 게임 기록에 남을 만한 카드를 절대로 넘겨주지 않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차라리 분노를 터뜨리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그보다 나를 더 괴롭힌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침묵 섞인 경멸, 혹은 비아냥거리는 듯한 태연함이었다.

“월슨 씨.”

우리의 주인은 몸을 굽히더니, 발치에 놓인 아주 호사스러운 희귀 모피 망토를 집어 들며 말했다.

“월슨 씨, 이건 당신 물건입니다.”

날씨가 추웠던 탓에, 나는 내 방을 나서며 가운 위에 망토를 걸치고 있었는데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것을 벗어 두었던 것이다.

그는 망토의 주름진 부분을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훑어보더니 말을 이었다.

“여기서 당신의 솜씨를 증명할 추가적인 증거를 더 찾으려 드는 건 불필요한 것이겠지요. 사실, 이미 충분하니까요. 이제 옥스퍼드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당신도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적어도 당장 내 숙소에서는 나가 주셔야겠습니다.”

당시 나는 쥐 죽은 듯이 엎드려 굴욕을 맛보고 있었다. 만약 그 순간,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사실이 내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지 않았더라

면, 나는 저 무례한 언사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폭력을 휘둘렀을지도 모른다.

내가 입고 있던 망토는 아주 희귀한 모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모피가 얼마나 희귀한지, 또 얼마나 터무니없이 값비싼 것인지는 차마 말하지 않겠다. 디자인 또한 내가 직접 고안한 기괴한 형태였다. 나는 이런 사소하고 허영스러운 일에 있어서는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고 멋을 부리는 성미였기 때문이다.

그때 프레스턴 씨가 방 안의 접이식 문 근처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 물건을 건네받는 순간, 공포에 가까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미 내 팔에는 내가 무심결에 걸쳐 두었던 망토가 걸려 있었는데, 그가 내게 건넨 망토가 내 것과 모든 면에서, 심지어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똑같은 쌍둥이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나를 이토록 처참하게 폭로한 그 기이한 인물은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우리 일행 중 망토를 입은 사람은 나뿐이었다.

나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프레스턴 씨가 건넨 망토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내 망토 위에 그 망토를 덧입었다. 나는 결연하고도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방을 빠져나왔다. 이튿날 새벽이 밝기도 전에, 나는 공포와 수치심에 휩싸인 채 옥스퍼드를 떠나 유럽 대륙을 향해 서둘러 길을 떠났다.

도망쳐 보았으나 소용없었다. 나의 불행한 운명은 마치 승리감에 도취한 듯 나를 끈질기게 뒤쫓았다. 그 신비로운 지배력이 이제 막 시작

되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말이다. 파리에 발을 들이자마자, 나는 이 월슨이라는 자가 나의 일에 얼마나 혐오스럽게 참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를 마주했다. 세월이 흘렀으나 고통은 조금도 덜어지지 않았다.

악마 같은 자! 로마에서 그는 얼마나 때아닌, 그러면서도 유령처럼 기괴한 참견으로 나의 야망을 가로막았던가! 빈에서도, 베를린에서도, 그리고 모스크바에서도 그랬다! 진정 내가 마음속으로 그를 저주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나는 마침내 그 헤아릴 수 없는 폭정으로 부터, 마치 역병을 피하듯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하지만 세상 끝까지 도망친들 무엇하랴, 모두 헛된 발버둥일 뿐이었다.

나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가?’ 하지만 어떤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가 보여준 무례한 간섭의 형태와 수법, 그리고 주요한 특징들을 아주 세밀하게 파헤쳐 보았다. 그러나 그조차도 추측의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었다. 최근 들어 그가 내 앞길을 가로막은 수많은 사례를 살펴보면, 그가 나타난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다. 내가 계획한 일을 망쳐놓거나, 진행 중인 행동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만약 그 일들이 계획대로 완수되었다면 분명 끔찍한 화를 불러왔을 터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토록 오만하게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천부적인 권리를 그토록

끈질기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그 따위 명분은 아무런 보상도 되지 못했다.

나를 괴롭혀 온 그자는 아주 오랫동안 기이할 정도로 교묘하게 내 옷차림을 나와 똑같이 맞춰 입으며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내 의지를 꺾으려 온갖 방해로 일삼으면서도,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얼굴을 내게 보이지 않도록 치밀하게 행동했다. 그가 윌리엄 윌슨이든 아니든, 이런 행위는 그저 가식적이거나 어리석은 짓에 불과했다.

그가 한순간이라도, 내가 이 숙적이자 악마 같은 존재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리라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이튼 시절 나를 훈계하던 자, 옥스퍼드에서 내 명예를 짓밟던 자, 로마에서 내 야망을 가로막던 자, 파리에서 내 복수를 방해하던 자, 나폴리에서 내 뜨거운 사랑을 가로막던 자,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가 탐욕이라 거짓 부르던 내 욕망을 방해하던 자가 바로 그였다. 내가 학창 시절의 윌리엄 윌슨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다. 나와 이름이 같고, 동료였으며, 라이벌이었던 그를. 브랜스비 박사의 저택에서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라이벌을 말이다. 결코 그럴 리 없다!

자, 이제 이 비극적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으로 서둘러 넘어가 보자.

지금까지 나는 그의 오만한 지배에 속수무책으로 굴복해 왔다. 윌리엄 윌슨의 고결한 성품과 위엄 있는 지혜, 그리고 마치 어디에나 존재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압도적인 모습은 나에게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그의 성격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면모들이 주는 공포심까지 더해지니, 나는 스스로가 한없이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나는 그의 독단적인 의지에 속으로는 빠져리게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나는 술에 완전히 빠져 지냈다. 술의 광기 어린 기운은 타고난 내 성미를 자극했고, 나는 점점 더 누군가 나를 통제하려 드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투덜대기 시작했고, 망설였으며, 마침내 저항하기 시작했다. 내 의지가 강해질수록 나를 괴롭히는 저자의 힘도 그만큼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단지나의 착각이었을까? 설령 착각이라 해도, 나는 이제 타오르는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않겠다는 단호하고도 절박한 결심을 굳혔다.

18—년 카니발 기간, 로마의 디 브로글리오 공작 저택에서 열린 가면무도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평소보다 술을 과하게 마신 탓인지, 사람들로 북적이는 방 안의 답답한 공기는 견디기 힘들 만큼 나를 괴롭혔다. 게다가 미로처럼 얽힌 인파를 헤치고 나아가는 일조차 무척 고단하여 내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사실 내가 그토록 애를 쓰며 길을 찾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어떤 불순한 동기였는지 굳이 밝히지는 않겠다.) 나는 나이 많고 노망난 디 브로글리오 공작의 젊고 화사하며 아름다운 아내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 그녀는 이전에 지나칠 정도로 거리낌 없이, 자신이 어떤 의상을 입을 것인지 내게 미리 귀띔해 주었다. 방금 그녀의 모습을 언뜻 본 나는,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참이었

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가벼운 손길이 내 어깨에 닿았다. 그리고
귓가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낮고 저주스러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나를 가로막은 자를 향해
즉시 몸을 돌려, 그의 뒷미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예상했던 대로 그는
나와 아주 흡사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푸른 벨벳 소재의 스페인식
망토를 걸쳤고, 허리에는 진홍색 벨트를 매고 그 위에 레이피어를 차고
있었다. 검은 실크 가면이 그의 얼굴 전체를 가리고 있었다.

“이 비열한 놈!”

나는 분노로 신 목소리를 내뿔었다. 말을 내뿔을 때마다 격렬한 분
노가 마치 새로운 불길을 지피듯 치밀어 올랐다.

“비열한 놈! 사기꾼! 저주받을 악당 같으니! 너는 결코, 결코 죽을 때
까지 나를 따라다니게 두지 않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면 그 자리
에서 찢어버리겠다!”

나는 소리치며 무도회장에서 인접한 작은 대기실로 밀고 들어갔다.
그는 저항 한 번 하지 못한 채 내 손에 이끌려 따라올 뿐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서는 그를 나는 거칠게 밀쳐냈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고, 나는 욕설을 내뿔으며 문을 닫은 뒤 당장 검을 뽑으라고 명
령했다. 그는 아주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이내 가벼운 한숨을 내쉬
며 말없이 검을 뽑아 들고 방어 자세를 취했다.

싸움은 참으로 짧게 끝났다. 나는 온갖 종류의 격정적인 흥분에 휩싸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오직 한 팔에만 수많은 사람이 몰린 듯한 힘과 에너지가 느껴졌다. 불과 몇 초 만에 나는 순수한 완력으로 그를 벽판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렇게 그를 제압한 뒤, 나는 짐승 같은 흥포함으로 검을 휘둘러 그의 가슴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꿰뚫었다.

그 순간 누군가 문고리를 돌리려 했다. 나는 침입을 막으려 서둘러 움직인 뒤, 곧장 죽어가는 적에게로 돌아갔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내가 느낀 그 경악과 공포를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잠시 눈을 돌린 그 짧은 찰나 사이, 방 저편 끝의 풍경이 눈에 띄게 변해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커다란 거울이 — 혼란스러운 정신에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인데 —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거울을 향해 다가갔을 때, 거울 속에는 나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나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피칠갑을 한 모습이었고, 그 형상은 힘없이 비틀거리며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렇게 보였을 뿐,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 앞의 적은 바로 윌리엄 윌슨이었다. 그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가 벗어 던진 가면과 망토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의 옷가지에 걸친 실한 가닥부터, 그 기이하고도 뚜렷한 얼굴의 생김새 하나하나까지, 그야말로 완벽하게 일치하여, 그것은 모두 나 자신의 모습이었다!

윌리엄 월슨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그가 말을 이어갈 때, 나는 마치 내 입에서 직접 말이 흘러나오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네가 이겼다. 이제 내가 행복하지. 하지만 이제부터 너 또한 죽은 목숨이다. 세상과 하늘, 그리고 희망으로부터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너는 내 안에 존재했으니, 나의 죽음과 함께 이 형상을 보아라. 너 자신의 모습인 이 형상을 통해, 네가 얼마나 철저하게 너 자신을 살해했는지 똑똑히 보란 말이다.”